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누가-행전 신학, 세션 7, 조엘 그린, 목적 신학.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세션 7, 조엘 그린, 목적 신학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신학을 계속 연구하며 주님을 찾도록 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당신 앞에 나아와 당신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애스버리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 조엘 그린(Joel Green)은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주석신학이나 그와 유사한 학문, 주석 및 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7년에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대해 놀랍고 새로운 국제 주석을 펴냈는데, 그 주석은 확고하지만 사회학과 수사학을 사용하여 누가복음의 메시지, 즉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의 사회적 상황은 그가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사실상 누가복음의 사회 세계, 즉 초자연적 존재의 역할, 주요 제도, 그리고 그 내용을 포함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됩니다. 기능, 사회적 역학 등.

우리는 누가의 탄생 이야기 세계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모티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첫 구절에서 누가는 권력의 균형에 관심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유대 헤롯 왕 시대의 이야기 시작 부분인 누가복음 1-5장은 모호한 연대기적 표시 그 이상이지만 이 사건들이 정치적 긴장이 있었던 특정 시기에 위치를 잡습니다.

헤롯은 강한 반이두메 감정, 즉 그의 배경, 이두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일종의 반 유대인으로 간주되었고 그런 식으로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통치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제적, 문화적 문제와 함께 헤롯 왕 시대의 언어를 읽을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인구 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로마제국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는 최초의 정복과 약탈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후 정복된 민족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2장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도 흥미롭다. 옥타비아누스는 고대에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신성한 구세주 스몰 에스(Small s)로 인정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구원자, 주님으로 제시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1 및 2:14. 더욱이, 스가랴와 마리아를 방문한 천사 가브리엘은 다른 곳에서 악한 자들을 멸하는 자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에녹전서 9장, 10장, 54절과 6절의 비성경 기록에서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은 영원한 나라 곧 다윗의 왕위로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느님의 강력한 구원 행위를 사회 정치적 반전으로 묘사하며, 권력자는 왕좌에서 내려오고 비천자는 높아지게 됩니다. 스가랴의 노래는 출애굽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적들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예언합니다.” 171.

시므온과 안나는 각자의 역할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을 희망하며, 또한 외국의 점령과 예속의 중단, 카이사르가 아닌 야훼 아래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부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평화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양한 형태의 종말론적 기대를 상기하면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장 52절까지를 어떻게 사회 정치적 배경에 맞서 읽어야 하는지 강조합니다. 기대되는 하나님의 오심이 정치적 지배와 사회적 억압을 종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1장 68절과 2장 3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말론적 방문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출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마리아, 스가랴, 시므온, 안나는 각각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에 대한 기대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탄생 이야기는 종말론적 기대와 이스라엘이 헤롯왕과 로마 대군주에 대한 예속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파급 효과를 지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장 52절까지에서 소개되는 사회적 환경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계층화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이는 누가가 경제적 계급, 예를 들어 개인의 상대적 소득이나 생활 수준의 함수로서, 또는 마르크스주의에서와 같이 생산 주제, 즉 생산 수단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기 산업 사회의 그러한 문제는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의 사회 세계는 권력과 특권을 중심으로 정의되었으며 종교적 순수성, 가족 유산, 비제사장의 토지 소유권, 직업, 민족, 성별, 교육 및 연령과 같은 복잡한 현상으로 측정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권력과 특권의 연속체를 따라 고려됩니다. 통치자는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지배계급은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권력과 특권에 참여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에게 대한 상당한 권력과 특권을 지닌 성직자들에게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상인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농민은 대규모 집단이며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팔레스타인 통치에 의존합니다. 장인은 그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특권의 사회학 전체는 최하층에 비해 주목할 만하다.

목록의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 나병환자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부자 집 밖에 있는 가난한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인 줄 알지만, 예수님은 존재하는 삶의 상황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떨어진 것,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빵을 먹으라고 구걸했습니다. 아마도 냅킨으로 사용된 다음 개들을 위해 땅에 던져진 빵 조각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굶주리고 병든 나사로도 그런 것을 먹고 싶었지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통치자, 지배 계급, 그 아래에는 성직자와 상인, 거기에 있는 장인, 그리고 이 권력과 특권 차트의 중앙에 큰 범위를 차지하는 농민이 있습니다. 밀바닥, 맨 밀바닥, 불결하고 타락한 맨 밀바닥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소모품이다. 그들이 죽으면 그게 다야. 우리는 그것들 없이는 더 나아졌습니다. 그것들은 소모품입니다.

이제 주목할만한 점은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예수님께서 권세와 명성의 연속체 전체에서 사람들에게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복음의 목적과 신학에 관한 조엘 그린의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1995년에 그는 『누가복음 신학』이라는 책을 썼고, 여기에서 그는 그 내용을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신학은 이야기 신학이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의 역사는 정확하지만 그의 역사는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개인과 그의 관심, 그의 사명,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제시하기 위해 고안된 신학적 역사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술적 통일성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려는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성을 강조하며, 여기서 우리는 이전에 사회학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 1세기 지중해의 분쟁 세계에서, 특히 더 큰 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기독교 운동에서의 구현이 어떻게 논쟁과 불확실성의 근원이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과 신실하심을 해석하고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반대에 직면하여 기독교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Darrell Bock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인 신실함과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목적은 주로 교회론적일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합법화하기 위한 기준과 정의하는 실천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 일차적인 신학적 강조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학자들은 구원이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주요 주제임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Darrell Bock도 이에 동의합니다. 하워드 마샬도 이에 동의합니다.

이 구원의 주제는 이야기 내에서 다른 텍스트 요소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고 그것이 교회를 강화하려는 전반적인 목적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제 누가복음의 주요 신학적 관심 중 일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을 정도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내용과 초점 면에서 신학적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자주 등장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사의 진행을 이끄는 설계, 봉사되거나 맞서 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설계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구원이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라면, 마리아가 복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언급 중 하나인 마니피캣(누가복음 1-47장)에서 그분을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구불구불한 여행과 관련된 복음의 중앙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합니다. 은혜로운 선행. 누가복음 1:13. 누가복음 12:32.

미안해요, 누가복음 11:13. 누가복음 12:32.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작은 비유를 말한 후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2:32.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신성한 목적이나 관점은 때때로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나 더 전형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하는 일련의 용어들을 통해 하늘의 사자들을 통해 성경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밝혀지고 해석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신성한 안무의 사례를 통해. 신성한 계획의 실현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능력인 성령이 계십니다.

신적 목적에 대한 누가의 강조는 기독교 공동체가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놓고 투쟁할 때 그의 교회학적, 해석학적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고대 계획과 예수님의 사역 사이의 일관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제도에 대한 예수님의 투쟁은 본질적으로 해석학적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합니까? 누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가? 아니면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누구의 해석에 신성한 승인이 있습니까? 누가 신성한 합법성을 받습니까? 루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고대 언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삶의 성경적 패턴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서 그에게 선언된 신성한 옹호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야기의

주제를 통제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책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이야기 속의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의 청중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역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행운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묘사되지만 선지자 이상의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메시아이시며, 비록 죽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최후의 말은 아닌 제왕의 선지자, 왕의 선지자의 운명을 자신의 경력에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분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것보다 그분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견해는 대부분의 복음서에서 전통적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복음이 거의 끝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예수의 높은 지위를 그의 극악한 고통의 전망과 경험과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초기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밝혀졌습니다, 2:11.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는 그의 치유의 기적과 그의 식탁 교제의 광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서 기자는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실천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식탁에 앉은 사람들과의 대화와 치유 사역을 통해 사회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소외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구원의 임재를 전달하십니다. 즉,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다(4장 4절, 18절, 19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인용하시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두루마리를 펴서 그 글이 기록된 곳을 찾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에게 돌려주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눈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와. 그들은 전에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와.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분은 단지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은 세 번째 복음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에 관한 복음서의 중간 부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가르침에서 종종 눈에 띄는 점은 그 방향이 단순히 올바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재구성된 하나님의 비전과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반영할 수 있는 일종의 세계 질서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자이시며, 그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특징이며, 다른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적절한 응답의 윤곽을 해석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에게 있어서 제자도에 대한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치하여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신분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현하고 다른 사람,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더 넓은 로마 세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으로 특징지어지는 고통스럽고 경쟁적인 삶의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는 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왕국에서의 봉사에서 자라나는 행동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후대를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십시오. 그러한 실천은 하나님의 선하심과의 변화적인 만남을 통해 성향, 신념, 헌신이 재형성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복음에서 이 초점에 대한 주요 경쟁자는 돈, 즉 돈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칭찬을 추구하고 권력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도록 고안된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돈의 지배에서 비롯됩니다. 낮은 지위, 가장 작은 자, 길을 잃은 자, 소외된 자.

Green은 여기서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권력과 지위, 그리고 이런 경쟁적인 삶의 형태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오늘날 가장 주목할만한 이름은 1세기 그리스-로마 문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킨 존 바클레이(John Barclay)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로마 상황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삶과 세계관에 대한 그리스-로마적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개념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 구조는 고객, 즉 고객보다 명성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관계망이었습니다.

복잡한 삶의 그물망 속에서 후원자-고객 관계는 그리스-로마 사회 전체에 걸쳐 구조화되었습니다. 후원자는 자유롭게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지만 큰 의무감을 갖고 요구를 이해했으며 이것이 올바른 말입니다. 고객은 후원자에게 충실하고 특히 투자에 대한 수익을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후원자의 영광과 명예, 바람과 소망, 계획과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보답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차례로 혜택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끈이 붙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방에 끈이있었습니다. 상호간의 의무가 사회 전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같은 말씀을 하셨거나 비유에서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반문화적입니다. 표현조차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십시오. 그들의 세계관 내에서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단적입니다. Barclay는 의무 없이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선물은 무료 선물이 아닙니다. 이는 받는 사람의 일부가 되어야 할 의무를 요구하는 선물이며, 결과적으로 고객은 다른 고객의 후원자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잡한 관계망이 형성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낮은 자에게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나 중간 자나 낮은 자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베푸신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주시는 방법을 주시고, 이것은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너무나 혁명적이어서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은혜라는 단어가 항상 사용되든 안 사용되든 놀라운 일입니다. ,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에 스며 듭니다.

아, 나는 그가 거룩하고 의로우며 다른 특성들을 나타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이 누가복음의 주요 목적이고 그 구원의 전파가 사도행전의 주요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널리 퍼져 있으며, 모든 사회 계층과 삶의 모든 상황,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전파되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백성인 새 언약 공동체 내의 관계에 윤활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John Barclay의 저작 나는 그가 쓴 모든 내용이나 그의 결론 전체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가 로마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독특한지 발견하는 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Darrell Boxk의 설명으로 돌아가는 데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Joel Greene의 박식하고 복음주의적인 누가복음 주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성격과 규모의 신실함을 구현하는 데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예상치 못한 통찰력을 나타내고 모범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이야기 속의 아무도 근처에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누가의 증언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항상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Luke는 다른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Greene은 이야기의 특정 지점에서 제자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부릅니다.

도시의 죄 많은 여자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는 다음 세션에 있을 교회에 대한 내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부유한 세금 징수원 세리 삭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회개하는 도둑,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이 부도덕하고 쓸모없는 여자가 자신을 만지도록 내버려두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 역겹다.

만일 그가 선지자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이고 삭개오는 멸시를 받았습시다. 그는 세리일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국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과거에 속했던 자들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누가는 유머 감각이 있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때때로 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한다는

것을 예기치 않게 보여주는 점에서 확실히 아이러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사역이 섬기고, 전파하고, 기대하는 신세계 질서에 따라 새롭게 사회화되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사도들의 행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의하고 모범으로 삼으신 신실함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를 주장합니다.

예수에 적대적인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노선을 따라 신성한 계획을 계산 하고 그분의 사역을 자신들의 지도력 위치와 현 질서를 영속시키는 기관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 자신을 반대하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항해야 할 존재입니다.

악마 자신은 신성한 목표에 반대하며, 루칸의 관점에서 악마의 목표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악마적인 세력과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달성됩니다. 적개심의 강은 점점 더 넓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의 수난으로 인해 강독에 범람하여 최종적으로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적대감의 모티프는 고조된 긴장감과 함께 누가의 이야기를 밀어붙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상징적인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며, 반대를 그 자체의 목적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루칸 이야기 전반에 걸쳐, 그것은 우리가 하워드 마샬이 그의 누가복음 역사가이자 신학자를 살펴볼 시간이 있었다면 바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바흐가 이제 만연한 조화 주제 구원을 강조한 것처럼 만연한 조화 주제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구원은 단순한 이론이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포용하고, 인간 생명의 온전함을 회복하며, 인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우주의 질서를 정립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서 실천하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넓어지는 타인의 범위를 향해. 세 번째 전도자는 사회와 영적,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때때로 그려지는 이분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심을 포함하여 육화된 삶의 총체를 포괄합니다. 누가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구원 목적이 명백히 드러난 위대한 은인이시며, 그의 메시지는 이 은총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고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 내가 연구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일곱 번째 세션은 조엘 그린(Joel Green)의 목적 신학입니다.